

---

# 2021년 제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2. 19. ~ 2. 2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2. 19.	시청률	0.000

## 【총 평】

국민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며, 아이템 선정과 취재 내용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특히, 관련 분야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전주 슬로시티 재인증...‘선미촌’ ‘팔복예술공장’ 한 몫은 전주시 슬로시티로 재인증 된 도시재생 공간을 소개하였는데, 과거 흥등가였던 ‘선미촌’이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빈집이 문화공간으로...비대면 집들이 축제’는 온라인 집들이를 보여주어 흥미로웠고 글로벌 리포트 ‘뉴질랜드 한식당 활기...한국 음식 맛있어요’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뉴질랜드에 부는 한식 인기와 한류 식품을 다루는 대형 마켓 확산 등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 전주 슬로시티 재인증...‘선미촌’ ‘팔복예술공장’ 한 몫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과거 집장촌이었던 선미촌이 ‘물결서사’라는 책방으로, 카세트를 생산하던 폐공장을 ‘팔복예술공장’이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취재했다. 어둡고 그늘진 곳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사례였다.
- 빈집이 문화공간으로...비대면 집들이 축제  
도시마다 흉물처럼 방치된 빈 집들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부산 봉산마을, 자갈로 마당을 꾸미고 기와를 새로 올린 이곳은 목공소로 다시 태어났다. 빈집 재생 입주 사업으로 선정된 8팀이 7채를 새로 단장했다.
- 뉴질랜드 한식당 활기...한국 음식 맛있어요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온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 뷔페 식당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양념 갈비와 삼겹살 등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어 뉴질랜드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도심 최고 속도 50km/h로 낮춘다...속도에서 안전으로!  
도심 주요 도로는 차량 속도가 최고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낮아지는 교통 정책을 전했다. 새로운 안전속도가 3월 21일부터 시행되어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문화 정책을 알려주었다 특히, 시간대별 교통체증 비교와 각종 실험 데이터도 준비해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OECD 대부분의 나라도 시행 중이라고 밝혀 더욱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 희생과 헌신에 감사...순직 소방·경찰 가족에 ‘사랑지원금’  
순직 공무원 사랑지원금에 관한 보도는 가슴이 뭉클했다. 유가족들의 인터뷰와 임신 중에 남편이 사고를 당한 젊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그러했다. 이들의 사연들을 소개하고 ‘사랑지원금’을 주관한 GS리테일의 순직자를 예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2. 20.	시청률	0.006

### 【총 평】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품은 경북 안동의 역사와 기록 문화유산 그리고 선조들의 사상을 담은 “선비의 멋과 정신을 만나다”를 방송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을로써 현재까지도 풍산 류씨가 보존 유지하며 600년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생생한 인문학 탐색장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안동의 기록 문화유산과 민족성이 어떻게 수 백 년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 안동의 선비 정신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는지, 유교 문화가 어떻게 민초들에게까지 스며들었고, 선인들이 어떻게 학문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 등을 매끄럽게 구성하였고, 몰입감을 높인 스토리텔링이었다.

한국의 정신문화 터이자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담긴 경북 안동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였고, 과거-현재-미래를 잘 품어냈다.

### 【구성 및 내용】

경북 안동편은 여러 가지 기록유산과 더불어 각 일가의 종택과 이육사, 권정생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세계, 그리고 봉정사와 서원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다루었다.

안동하면 먼저 하회마을이 떠오르는데 양진당이나 충효당의 멋드러진 고택 양식도 눈에 잘 들어왔고 그에 대한 소개도 잘 되었다. 하회세계탈박물관에서 이어진 탈에 대한 소개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탈의 종류에 따른 특징이나 당시 신분제도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잘 되어 하회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직접 탈을 제작하는 장인의 모습도 준비하여 하회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한 점이 좋았다.

이육사문학관에서 이육사 시인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시와 함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강조되었다. 특히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는 용기를 강조하면서 감옥 조형물과 고문의 현장이 그대로 재연되어 독립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임청각과 군자정에서 배출한 독립운동가와 시인을 살펴보았다. 으리으리한 99칸짜리 집 내부도 신기했지만 곳곳에 붙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가족에 대한 사연도 따로 준비가 되어 현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유교책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남 유교 명문가들의 집안의 저작물 6만의 목판을 소장한 곳으로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아지 똥’과 ‘몽실언니’로 알려진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청빈한 삶과 국보 311호인 대웅전을 비롯해 다수의 국보와 보물을 품고 있는 봉정사와 안동을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이들 서원들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정신문화의 산실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20.	시청률	0.103

## 【총 평】

북한을 소재로 하는 제한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선한 기획과 구성으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용자들의 흡인력을 제고하는 점이 탁월하다.

‘NOW北’은 최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실상과 미국 정보국 담당자가 언급한 ‘북한 붕괴론’의 내용과 배경을 진단한 뒤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았다. ‘단박톡’은 남북평화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임형주 팝페라 테너를 초대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 내용과 의미, 스포츠 행사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을 들어보는 토크가 메시지 전달력과 공감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NOW北’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격노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봤는데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 실태를 제대로 전달했다. ‘단박톡’은 평화의 메신저로 알려져 있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가 남북평화에 대한 생각을 전했는데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함께 스포츠 행사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방안 등을 솔루션으로 제시한 부분이 기획의도를 살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코로나 방역,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인도적 문제 등 다방면의 대북 교류 전략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격분한 속사정으로 출발해서 북한이 직면해있는 경제난의 실상을 내용적으로 분석해 큰 그림 속에서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국경 봉쇄로 인해 물품과 원재료 수입 중단으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이들은 1년 내내 등교가 불가했고 평양에서는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인 시드니 와일러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붕괴론’을 과장하지 않고 되도록 객관적으로 방송했다.

예술인 중에서 남북평화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를 초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았다. 임형주 씨는 남북평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유엔본부에서 역대 최연소, 한국인 최초로 UN 평화메달도 수상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는 동독과 서독의 예를 들며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남북평화에 대한 소신도 뚜렷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왜 남북 평화와 통일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해 공감도를 높인 부분이 돋보였다. 특히, 북한 가곡 ‘임진강’을 무반주로 열창한 부분이 감동을 선사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2. 21.	시청률	0.026

## 【총 평】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배경, 정치권 동향 과 함께 지급 대상, 보상 수준, 손실 파악,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정책 알림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 기획이 돋보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에 임시국회를 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는 기획이었다. 손실보상제 입법에 관한 논의가 왜 시작됐고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풀어간 점도 큰 그림 속에서 핵심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제 도입이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해 명확히 사안을 정리했다. 특히, 3차에 걸친 집합금지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 코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탐사보도식으로 접근한 취재방식이 몰입감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로 인한 업소의 집합금지명령이 3차례나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제 입법화에 나섰고 정부에서도 다음 달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작년 5월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하지 못한 코인노래방 운영자는 임대료 등 각종 비용으로 힘들어했다. 코인노래방 사장의 고충과 하소연을 통해 자영업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대변한 시작부분은 문제제기로 충분했다. 손실보상제가 왜 필요하고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점이 수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손실보상제의 관건으로 거론돼온 보상의 수준, 손실 파악 방법, 재정 건전성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점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법제화 이전에 고려해야할 전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야의 주장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시청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코로나19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와 달리 ‘감염예방법’은 보상을 위한 규정이 전무하므로 법적으로 보상을 명문화하라는 자영업자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다. 헌법 제 23조 3항을 들어 손실보상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강제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마무리 메시지가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21.	시청률	0.141

### 【총 평】

부와 명예 보다는 행복과 자유로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활 도예가로서의 삶이 좋다는 귀촌 23년 차 부부 이야기 '부석사 아래 흙 굽는 집'은 부부의 자족하는 삶이 어떤 행복을 담아내는지 보여주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생활 도예 작업을 하는 주인공 부부는 부석사 총무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낡아가고 늙어가며 죽어가는 인생사를 선문답하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성찰 중이다.

도자기를 굽고 사는 주인공 부부는 솟대의 머리나 새집으로 쓰이는 오리를 주로 만든다. 우리네 삶과 도자기는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들 부부에게서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24년 전, 서울 도심 여자와 강원도 산골 남자는 충북 단양의 도예교실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소백산맥의 정기를 이어 받아 흙과 불로 귀촌의 삶을 살아왔다. 주인공 부부는 천년고찰이 있는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 터를 잡은 생활 도예가로 무인카페를 열고 생활 도예를 팔며 부석사와의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열정 부부이자 동업자이다. 결혼도 서로의 필요 충족에 의해서라도 말할 정도로 솔직한 부부이지만 작품을 만드는 열정은 순박함 그 자체다.

늙고 병든 반려견 다래와 몽이와 함께 사는 주인공 부부는 비싸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거나 새들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도예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오리 모양 도자기나 글이 담긴 그릇 등을 굽는 도예가 부부는 팔리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맘껏 누리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 주인공 부부는 전통 가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흙과 불에서 느끼는 배움 또한 크고 깊다. 부와 명예 보다는 행복과 열정으로 마음의 부를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할 만큼 용기까지 갖췄다.

부부는 부석사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데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우리네 삶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부부는 가마 불 때기와 열 빼기 그리고 꺼내기까지 장장 사흘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만나는 작품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행복을 맛보는 듯하다. '예술적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주인공의 삶은 일상마저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토우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기를 꿈꾼다."고 말하는 주인공 부부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해피바이러스를 만날 수 있었다.

부석사에 올라 삶의 태도를 다스리는 참선 수행과 스님과 다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천년고찰 지근에 사는 혜택으로 깨달음의 덤을 얻는 모습들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함과 치유의 시간을 전달하였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2. 23.	시청률	0.000

### 【총 평】

“작년 4분기 가계동향 분석,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은?” 작년 4분기 가계 동향 분석 조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시간으로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정보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연대적 가치 즉,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제도를 언급함으로써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한 의미 있는 구성이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공생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 【구성 및 내용】

전세계 감염자 1억 명 돌파, 사망자가 1·2차 세계대전 사망자를 넘어섰다. 인도와 브라질이 감염자 1천만 명을 넘었으나 신규 확진자는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 2월 22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국내외 현황과 대응을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와 집단 면역 가능성, 4차 대유행 가능성,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접종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가계의 경상소득이 '19년과 비교해 '20년에 약간 올랐으나 이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 분석,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은?”에 대해 작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외형적 모순 즉, 통계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에 비해 ‘소득 양극화’ 문제가 드러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바람직한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다.

작년 4분기 가계 동향, 소득 대비 소비지출 경향 내용 해석, 코로나19로 소득에 따른 5분위별 소득 증감 그래프 분석, K자형 소득 격차 유형,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전망과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협력이익공유제도, 제도화하기 위한 정계와 재계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 플랫폼세(디지털세)를 도입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 등을 언급하였다. 코로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기여의 요구는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유럽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혁신에 의한 이익을 나누는 제도가 일부 기업들에 의해 시행하고 있었다. 손실보상제는 공권력에 의한 적법한 절차여도 개인적 경제적 손해가 크고 지속될 경우 국가가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함을 입법화해서 차후에 적용해야 함을 이슈화되고 있음을 전하였다.

‘S&News’ 주요 키워드는 #복수의결권, #LED 어디에 버려? #표준물질 국산화였으며, 특히 쿠팡이 뉴욕증시 시장에 상장됐다는 소식으로 주목받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복잡하지 않고 쉬운 언어로 풀이해 주었다. 또, LED 조명을 이제는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2. 24.	시청률	0.076

### 【총 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일상 회복 '첫걸음'을 비롯해 '내일 요양병원·보건소로 이송... 모레 접종 시작', "AZ 백신 안전"...접종자에게 '증명서' 발급 등 AZ 백신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내용과 고용보험 개정안, 스포츠계 미투, 건강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스포츠계 미투는 일각의 보도처럼 논란거리 정도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연계시켜 대안에 집중하여 좀 더 폭넓게 다룬 점이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주요뉴스는 AZ 백신 관련 소식,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 스포츠계 학교폭력 대응방안, 건강정보앱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들을 고루 다루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를 맞아 AZ 백신의 장점과 우려점을 함께 살펴보고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다. 오늘의 브리핑은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방송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차례로 전했고, 경북 안동에서 백신이 출하되는 장면부터 이동 경로를 따라 이천에 도착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보도했다. 이 밖에 백신 접종계획을 꽤 비중 있게 전달했고, 접종기관의 대응체계나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광명 시흥·부산·광주 신규 택지 지정...10만 가구 공급'과 '광명 시흥' 서남권 거점 자족 도시 조성 등의 신규 공공택지 계획은 투기방지방안과 입주자 모집 계획을 전하고 세부적으로 지역별 추진 현황을 따로 전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도는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다루었다. '가해자 무관용 징계...신고기간 운영·인권교육 강화'는 다른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올바른 신고제도와 인권교육, 치유 프로그램과 가해 학생 조치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 위주로 다룬 점이 아주 좋았다. '집 앞'까지 어린이보호구역...보호구역인 증제 도입은 스쿨존 교통발생 건수에 대해 1년 전과 비교해 민식이법의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의미가 있었다. '나의 건강기록' 출시 소식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계획은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은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를 다루었다. 경북 코로나 백신 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인 AZ 완제품 75만 명분이 첫 출하 소식과 운송 일정, AZ 가격 대비 효과 강점, 면역 효과, 콜드체인 유통 방법, 고령층 접종 안정성, 2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등을 전달했다. 특히, 백신 못지않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20. 2. 25.	시청률	0.013

### 【총 평】

정세균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시도한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과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현장 연결은 국정외 소통과 국정 현장의 순기능을 확장시킨 기획이 돋보였다. 생방송의 현장성, 동시성의 방송 특성을 살리며, 시청자 만족도를 높여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특히, 출입기자단 운영 개선 의도와 보도자료 제공 등 상세한 부분까지 국무총리가 언급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찰 수사권 개혁, 코백스 백신 공급 발언, 한일 경색국면 타개방안, 손실보상법 등 현안 질문에 대해 국무총리가 답변해 언론과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신뢰감과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시도한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을 현장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현장에서 이어진 당국자와 취재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중계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은 총리실 출입기자는 물론 모든 부처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린 점이 돋보였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 방안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밝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검찰 수사권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정부 입장 등을 소대했다.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백신 방역을 하루 앞두고 백신에 대한 질문과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방역 및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인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속하고 효과적 선제검사 실시 의지를 밝히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작 계획, 집단 발생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제주도 백신 운송 중 적정온도 이탈 문제를 비롯해 같은 병원 안에서의 접종 차별 문제, 1호 접종자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오늘은 주요뉴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현안브리핑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등 두 건의 현장중계를 방송했다. 두 건의 브리핑이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뉴스를 전하지 못하고 끝냈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영상과 자막으로 구성한 헤드라인 뉴스라도 방송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뉴스진행자의 경우 뉴스 진행자로 손색이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늘 같이 뉴스가 나가지 않고 브리핑만 있을 경우 이런 변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이 아쉽게 다가왔다. 정세균 총리가 기자들과의 한 Q&A는 내용적으로 중요사항이 많았는데 끝난 후에 진행자가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